물 위의 미술관, 성파 대종사가 띄운 자유의 그림

10월 12~19일, 성파선예 보경호 수상전
성파 스님 옻칠 항아리·회화 200점 띄워
형식 넘은 '자유', 자연이 거대한 캔버스
메밀꽃 만개한 장밭뜰 배경으로 펼쳐져
"형식 벗어나 본래 생명력 되찾는 자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보경호 수면에 띄워진 성파 스님의 옻칠 작품들. 붉은 항아리와 회화의 추상적 색면이 물 위에서 '자유의 미술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 제공=통도사



통도사 보경호에서 열린 '성파선예 수상전—자유에로' 개막식에서 성파 스님이 직접 항아리를 띄우며 '자유의 예술 의식'을 펼치고 있다.

미술관 벽에서 호수 위로, 고정된 형식에서 살아 있는 자유로. 성파 스님의 예술 작품이 물 위를 유영하며 인간이 본래 지닌 자유를 드러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2일 통도사 보경호(寶鏡湖)에서 '성파선예(性坡禪藝) 보경호 수상전 – 자유에로[自由自在]' 개막 행사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특별전으로, 옻칠 항아리와 회화 200여 점이 호수 위에서 바람과 빛을 따라 유영하며 '물 위의 미술관'을 연출했다.

개막식에는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염불원장 법산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나동연 양산시장 등과 신도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스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전시 준비에 나섰다. 호수에 띄울 옻칠 회화와 항아리 작품들이 줄지어 놓였고, 봉사자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작품을 옮겼다.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한 장밭뜰은 전시의 무대가 되어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개막식 이후 대중이 호수를 둘러서며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성파 스님이 붉은 옻칠 항아리를 들어 조용히 수면 위에 띄우자, 항아리가 미끄러지듯 물결 위로 나아갔다. 이어 수좌 스님들이 옻칠 회화 패널을 차례로 띄웠고, 수면은 거대한 캔버스로 변했다. 물 위에서 바람과 빛을 따라 움직이는 작품들은 자유롭게 유영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성파 스님은 "그림은 무(無)에서 태어나지만 벽에 걸리는 순간 형식의 틀 안에 갇힌다"며 "이번 전시는 그 벽을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며, 예술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인간도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속박이 시작된다. 태어나서 이름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역할이 주어지면 그에 매여 살게 된다"며 "이름과 소유, 경계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래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했다.

또한 "예술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스스로 비치듯, 작품 또한 바람과 빛 속에서 저절로 그려진다"며 "예술이 인간의 손을 떠나 자연과 함께 숨 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감독은 "성파 스님은 미술관마저 속박으로 보신다"며 "물 위의 전시는 인간이 본래 지닌 자유를 예술로 드러낸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성파 스님의 작품은 자비와 지혜, 깨달음의 기운을 담은 하나의 경전"이라며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품이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는 인간과 자연, 예술과 수행이 하나로 어우러진 장엄한 세계"라고 평했다.

보경호는 지난해 통도사 장밭뜰에 조성된 인공호수로, '영축산의 향기를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날 호수 위에 전시된 작품들은 바람과 빛을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전시 주제 '자유에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전시명은 성파 스님의 한시 "영축산에 있는 보배 같은 거울 호수, 그 경치와 빛은 끝이 없이 저절로 밝게 다가온다(靈鷲山中寶鏡湖 景光無盡自明來)"에서 비롯됐다. 이번 전시는 10월 19일까지 통도사 보경호 일원에서 진행됐다.

월정사,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

오대산시민작가포럼 주축…연 2회 발간 계획
환경, 평화 등 지구적 문제 다뤄
이문재 시인 "지구시민이 되자"

강원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지구시민을 꿈꾸는 시민작가들이 새로운 종합 교양지를 창간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지난해 10월 12일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이 '인간의 목소리, 지구의 숨소리'를 슬로건으로 종합 교양지 〈오대산〉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은 인간과 지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작가와 시민의 모임으로, 월정사가 중심이 돼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성찰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창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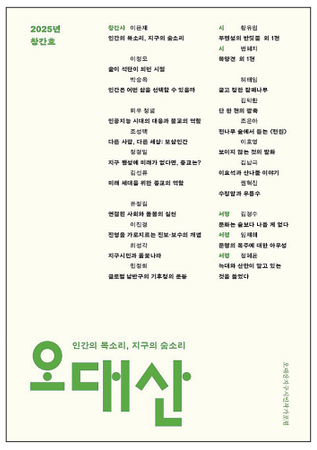
포럼은 성찰하고 표현하며 연대하는 '지구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번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은 포럼의 목표를 공유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이문재 시인의 창간사 '인간의 목소리, 지구의 숨소리'에서 잘 나타난다. 인류는 새로운 차원의 절실하며 이는 의식혁명임을 강조한 이 시인은 '지구시민'이라는 새 개념을 제안했다.

이 시인은 "지구시민은 아직 미래형이지만 인류와 지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탄생해야 할 인간형"이라고 정의하며 "지구시민은 저마다 자기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이고, 이것이 핵심역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의 삶과 꿈을 글이나 그림, 춤, 음식, 옷 등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엄연한 작가다. 성찰하고 표현하고 연대하는 지구시민이 하나둘 늘어나면 마침내 지구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반년간지 〈오대산〉은 지구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적 담론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창간호에는 특집으로 미래 사회와 종교문제를 깊이 성찰한 종교인과 전문가들의 글이 수록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과 대응 그리고 불교의 역할'을 통해 "점차 가속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는 인간성의 실현과 공존의 가치 정립, 이를 통한 세계의 청정성 회복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이 발간한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호 표지.

이와 함께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숲이 석탄이 되던 시절'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의 '기후지옥-초지능시대 인간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조성택 마인드랩 이사장의 '다른 사람, 다른 세상: 보살인간'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지구 행성에 미래가 없다면, 종교는?' △김선류 가톨릭 춘천교구 신부의 '미래세대를 위한 종교의 역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의 '연결된 사회와 돌봄의 실천' △최성각 작가의 '지구시민과 풀꽃나라' 등이 수록됐다.

각국 기후운동을 소개하는 '세계의 기후운동'에서는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대표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 정의 운동'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환경운동 현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 위원들이 각자 연구하고 활동하는 분야에서 지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글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종합 교양지 〈오대산〉은 내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지구와 인간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의 글을 담아낼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청화 스님, 이승희 시인

오는 11월 15일 시상식 개최



청화 스님



이승희 시인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청화 스님(정릉 청암사 주지)과 이승희 시인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과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는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이승희 시인을, 선문학 부문에 청화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이승희 시인의 시집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문학동네, 2025), 청화 스님의 시집 〈나를 찾는 소리〉(불교문예, 2023)이다.

이승희 시인은 199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수상시집을 비롯해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 〈거짓말처럼 맨드라미가〉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전봉건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선문학부문 수상자인 청화 스님은 1977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물이 없는 얼굴〉, 〈사람입니까〉 등을 펴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심사위원회(박수완·이하석·공광규)는 "이승희의 시가 감싸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연민과 슬픔은 스스로를 낮춰 연꽃봉오리를 드러내는 연잎 같다"고 평가했으며 "청화 스님은 출세간의 세계를 편안하고 자애로운 시선으로 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수행' 주제로 3년 학술연찬결사 열린다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
2027년까지 '수행' 주제 진행
올해 연찬회, 11월 29일 개최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다뤄

매년 다양한 불교적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어 왔던 밝은사람들연구소가 올해부터 3년간 '수행' 주제로 연속 학술연찬결사를 진행한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 이하 연구소)는 11월 29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연구소는 '수행'을 주제로 2027년까지 3년 동안 연찬회를 진행한다. 첫 주제는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이며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을 비롯한 전문학자들이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월암 스님이 '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과 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가 '불교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통합'을,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와 수행 전통의 통합적 이해'를,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구도적 수행의 심리학'을 각각 발표한다.

학술연찬회 발표 논문은 '밝은사람총서 20'(운주사)으로 묶여 11월 초 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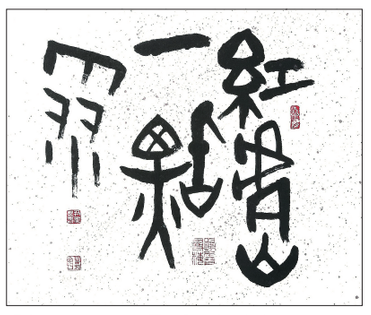
올해 연찬회가 '수행'의 면면을 큰 틀에서 다룬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2026년 11월 열릴 연찬회에서는 '지관, 따로 닦나 함께 하나'를 주제로 다루며 초기·대승불교와 티베트·중국·한국불교, 종교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027년 11월 개최되는 연찬회에서는 '간화,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초기·선불교와 불교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간화선의 면면과 그간의 연구 현황들을 조명한다. 연구소가 추진하는 3년간의 대장정에는 월암 스님, 미산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이필원·권석만·박성현 교수 등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 전통들을 살펴보고, 현대인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삶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명료해지고 성장과 성숙, 이고득락(離苦得樂)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묵연에 깃든 수행 세계 만나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가회 윤영화 사경전



윤영화 작가의 작품 '홍로일점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사경 수행의 깊은 정신을 예술로 풀어낸 '가회 윤영화 사경전 – 묵연(墨淵) 속에 깃든 세계'를 개최한다.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윤영화 작가의 오십여 년 예술혼이 담긴 사경작품 50여 점이 선보인다.

윤영화 작가는 반세기 넘게 서예와 사경에 매진해 왔다. 대한민국서예대전·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이자 심사위원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았고, 부산미술협회·부산서예협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지난 13년간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서예를 지도하고 있다.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금니사경탱 등 다수의 불사에도 참여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라며 "쉼 없이 정진해 온 작가님의 예술혼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전시가 불법을 전하는 귀한 결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